인도네시아 김철용 ,이강인 선교사 선교서신 2022년 8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3-4)

요즘 같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살아가는시는 모든 성도분 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소식들

지난 2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제한된 삶과 더불어 생업과 사역에 막대한 어려움을 지나왔습니다. 저희도 5명의 학교직원과 학생들이 주님 나라로 부름받았으며, 장기간에 걸친 온라인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 8월 학기부터는 다른 섬에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학교 기숙사로 모두 들어와서 정상적인 수업에 들어갑니다. 오랫동안 텅빈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활기를 되찾은 학교를 보며 우리에게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2022년 신입생들

각 섬에서 42명(학부, 대학원과정)의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서 몇명이 마지막까지 모든 학업과정을 극복할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재정문제입니다. 대부분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여러경로를 통하여 연결해주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달에 40불의 비용만 있으면 한달 식비, 기숙사비, 학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도 장학금을 위하여 기도하며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한 사명감과 영혼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개척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졸업이 보류됩니다.

2022년 8월 졸업생 후보자들의 수련회

지난 달에는 교수들과 학부, 대학원 과정의 졸업생 예정자들과 1박2일의 수련회 가졌습니다. 졸업후에 신학적인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겸손, 순종, 성품"**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신학교를 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회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거지만, 이곳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개종후에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위하여 신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후에도 마치 부모가 아직 철이 덜든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는 심정으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이 늘 조마조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무슬림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개척과 영혼 구원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학교의 비전교회개척사역

그동안 2년동안 학생들의 의무인 주말 교회개척 사역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이동이 제한되어 전도를 위하여 사람과의 접촉과 예배가 금지되어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말마다 학생들이 사역지로 출발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학생들 사역지 방문을 8월 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감격의 졸업식

드디어 8월 29일에 3년만에 대면 졸업식을 합니다. 여러사정으로 30여명의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네시아 교회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강인 선교사가 졸업식 음악 순서들을 담당하는데 은혜가운데 잘 마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있는 각처에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김철용, 이강인 선교사

기도제목

-2022년도 신입생들의 사명감과 학업.
-학생들의 주말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기간에 학교와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
-전도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저희 수라바야 신학교의 정체성 고수.
-새학기 강의하는 저희에게 지혜와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드림.